

# 전란의 시대 빛 발한 남도 의병 이야기

# “예쁜 누나, 좀더 나이 들어 돌아왔어요”

한국학호남진흥원 '남도의병사' 발간

광주일보 '의병열전' 시리즈 토대  
임란~한말까지 호남의병 활약상  
역사적 사건·인물·장소 총망라

“역사가 말하는 것은 국가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다.”

역사를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눈은 다양하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밖에 전쟁이나 군사와 같은 특수한 카테고리도 조망할 수 있다.

예로부터 남도는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힘을 결집해 국난을 극복해왔다. 그 가운데 의병이 자리한다. 범박하게 말하면 남도는 의병의 역사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의 의해 우리의 역사는 이어져왔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최근 '남도의병사'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전란의 시대에 빛을 발한 그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의병들의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로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을 비롯해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명예교수,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가 참여했으며 사진은 김진수 광주일보 기자가 담당했다.

광주일보는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의병열전' 시리즈를 1년 8개월여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이번 책 집필을 위해 조동수 전 주필이 당시 다양한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 호남의병 역사를 추적했다. 지금의 취재 환경이나 제작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46년 전 자료는 이번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1975년 당시 취재기자는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과 김동영 기자(전 로케트전기 대표이사)였다. 이번 책에 기록된 구체적인 의병 활약상은 당시 내용을 각색·정리한 뒤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첨가됐다.

의병의 사전적 의미는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를 말한다. 무엇보다 ‘자발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대부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나와 내 가족보다는 공동체와 우리 사회,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기꺼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고귀한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의병 총론’에는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의 글이 실렸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활약했던 의병장들 김천일, 고경



임란이 발발하자 김천일이 양산릉, 양산숙, 서정후 등과 함께 거병했던 장소인 나주 정수루.



한말 호남에서 가장 먼저 거병한 기우만의 조부인 노사 기정진이 설립한 고산서원.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명, 최경희, 임계영, 김덕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 연구위원은 “호남의병들이 호남 지역을 지켰고 연해지역의 호남 백성들은 이순신을 도와 남도의 바다를 지켜냈다. 호남의 보전은 군량미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조선의 관군·의병과 명군의 사랑을 조달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부 ‘한말 호남의병 총론’은 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의 글을 담았다. 홍 교수는 호남의병은 1896년 기우만이 의병을 일으킨 후부터 불굴의 항전을 거듭해왔으며 1907년부터 의병항쟁을 선도했다고 설명한다. 이후 곡성, 담양, 장성 등 내륙 외에도 해남과 완도 등 남해 도서까지 일어날 만큼 확대됐다. 참여자들도 양반 유생, 전직 관료, 유배수 등 신분을 초월한다.

홍 교수는 “호남의병은 국내 항일의병까지 건설의 기초를 닦는데 공헌하였다”며 “나아가 11개의 대표적 의진이 참여한 호남동맹단을 결성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화정책을 조금이나마 지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3부와 4부는 각각 ‘조선시대 호남의병의 이야기’와 ‘한말 의병 인물열전’으로,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가 집필을 했다. 3부에는 임란 의병장 고경명, 두 아들 고종후·고인후를 비롯해 김천일, 나덕명, 최시랑, 최대성, 김경수, 김세근 등의 이야기가 게재돼 있다.

4부에서는 ‘가장 먼저 거병한 송사 기우만’, ‘호남창의회맹소 대장 성재 기삼연’을 비롯해 ‘총리 호남의병대장 고광순’, ‘면암 최의현과 거병한 돈현 임병찬’, ‘우국충정의 마음을 시에 담은 금제 이기손’, ‘용진산 호랑이 오성술’, ‘대담한 작전과 용기로 이름 높은 이대극’ 등의 활약상을 만날 수 있다.

윤 기자는 “한말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 직후 일어나 1910년 경술국치에 이어 1915년까지 20년간 저항을 계속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간이 길었고 전개과정도 복잡다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책 부록에는 ‘의병장들, 그들의 숭고한 이름들’이 담겨 있어 당대 의병장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책은 광주일보에 연재중인 ‘新호남의병 이야기’ 시리즈를 토대로도 쓰여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른, 아홉’ 출연 손예진  
4년만의 JTBC 복귀작  
전미도 “농도 짙은 워맨스 기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웃음)”  
출연작마다 안방에 설렘 가득한 기운을 불어넣었던 ‘멜로퀸’ 손예진(40·사진)이 동갑내기들의 우정과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안방을 찾는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2018) 이후 4년 만의 JTBC 복귀작이다.

그는 16일 열린 JTBC 새 수목드라마 ‘서른, 아홉’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작가님이 CC(폐쇄회로)TV를 담아놓은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제가 딱 공감할 수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이자 사랑 이야기다”라고 소개했다.

연인인 배우 현빈과의 결혼을 최근 발표한 그는 “배우로서도 개인적으로도 큰일이 올해 초 일어나게 돼서 운명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축하를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소감도 전했다.

‘서른, 아홉’은 마흔을 코앞에 둔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작품이다. 손예진은 일곱 살에 입양돼 남부러운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 온 강남 피부과 원장 차미조 역을 맡아 실제로도 82년생 동갑내기인 전미도, 김지현과 연기 호흡을 맞췄다.

그는 “특별히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고 서로에게 스며들었다”면서 “미도 씨는 너무 귀여워서 껴붙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고, 지현 씨는 활영하면서 속 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동료 배우들을 칭찬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에서 채송화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전미도는 서른아홉 살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정찬영을 연기한다.

그는 “찬영이는 전작 캐릭터와는 정반대”라면서 “굳이 다르게 연기하기보다는 (대본에) 쓰인 찬영을 열심히 표현하다 보면 보시는 분들도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워맨스’(여성과 로맨스를 합친 신조어)를 그린 기존 작품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다”면서 “농도가 짙은, 밀도 있는 워맨스를 기대하셔도 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영광하고 소심한 성격의 장주희 역을 맡은 김지현은 전미도와는 실제 십년지기라고 밝히고 “처음에는 손예진과 연기를 한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촬영을 하면서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촬영장이 화기애애했다. 드라마에서도 잘 드러날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트레저 ‘더 세컨드 스텝’, 아이튠즈 30개국 앨범 차트 1위

그들 트레저(사진)가 약 1년 만에 내놓은 새 음반으로 세계 30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1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미니앨범 ‘더 세컨드 스텝 : 챕터 원’(THE SECOND STEP : CHAPTER ONE)은 일본,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 등 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음반은 세계 최대 팝 시장인 미국 차트에서도 4위를 기록했다.

YG 측은 “오늘 기준으로 음반 판매 비율을 국가별로 따져보면 미국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해 아시아권의 인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음반에 수록된 타이틀곡 ‘직진’(JIKJIN)은 국내외 음반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공개된 이후 벅스의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고, 다른 수록곡들도 2~4위를 차지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차트에서도 ‘직진’은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곡은 특히 일본 라인뮤직의 톱 100 차트에서도 실시간 1위에 올랐다. 트레저는 2020년 8월 데뷔한 12인조 보이그룹으로, 멤버 12명 중 일본 출신이 4명이다. /연합뉴스

## 개업·성업 안내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햇도그1개 1000원  
치즈햇도그1개 1500원, 칠팔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자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속,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성내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